



보 도 자 료

문 의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최기성 실장(02-3660-1824), 이은경 책임(1894)
NPR 진신혜 과장(02-2257-6370), 박지영 대리(02-6949-6191)

2023서울모빌리티쇼에서 우티(UT) 서비스 만나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글로벌 차량호출서비스 우티와 업무협약 체결 -

- ◆ 2023서울모빌리티쇼의 성공적인 개최 위해 상호 협력 추진
- ◆ 관람객 대상으로 우티 할인권 배포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강남훈, 이하 KAMA)와 우티(대표 톰화이트)가 ‘2023서울모빌리티쇼(Seoul Mobility Show 202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은 강남훈 KAMA 회장, 톰화이트 우티 대표를 비롯해 양 기관의 임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AMA와 우티(UT)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서울모빌리티쇼를 방문한 관람객들에 우티 할인권을 증정한다. 할인권은 ▲우티 첫 이용 시 1만원 즉시 할인 ▲기존 우티 이용자 대상 택시요금 10% 상시 할인(4월 30일까지) 쿠폰으로 구성되며, 우티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관람객들이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관람하고, 우티의 택시호출서비스도 할인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권은 서울모빌리티쇼 티켓 구입 시 제공되며, 우티 첫 사용자를 포함해 기존 고객들도 모든 택시 서비스에 상시 할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KAMA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올해 서울모빌리티쇼가 단순 전시회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체험과 연계해 입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처음 시도되는 이러한 협력이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 기반 모빌리티 호출 플랫폼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우티 관계자도 “우티를 한국 대표 모빌리티 전시회에 선보이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 며 “우티는 차별화된 호출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들의 서비스 만족감을 높이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모색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9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에서 개최된다. 총 전시규모는 53,541m²로 지난 행사(26,310m²)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 세계 12개국 160여 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를 선보인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다.

* 사진자료 : 협약식 사진 3종

[사진자료 1] 왼쪽부터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틸화이트 우티 한국지사 대표



[사진자료 2] 업무협약서에 사인하는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사진자료 3] 업무협약서에 사인하는 톰화이트 우티 한국지사 대표

